



국제화 프로그램 참가 결과보고서



소속					
성명		학번		연락처	
참가 프로그램	동계 단기 어학연수_캐나다				
프로그램 참가기간	2023/1/2~2023/1/29				

1. 외국에서의 학습 및 체험 활동 내용(교육과정 위주로 기술)

수업은 크게 Core수업과 Elective수업으로 나뉩니다. Core수업은 grammar, speaking, listening, writing로 이루어져 있고 Elective수업은 speaking과 listening 중심입니다. Core수업은 8시 30분부터 11시 50분까지 (쉬는 시간 20분 포함), Elective수업은 12시 20분부터 1시 50분까지 이루어집니다. Core수업은 수업시간이 긴 만큼 그 시간에 많은 것을 배우는데 대체로 2명~4명 단위의 조를 이루는 활동이 주를 이룹니다. 특히 speaking 시간에는 매 주제마다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때문에 영어 실력과 함께 친구를 사귀기 좋은 시간입니다. grammar는 한국 학생들이 쉽고 느낄 수 있으나 기초 실력을 다시 다지고 헛갈렸던 부분을 재정비 한다는 마음으로 수강하면 편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listening 부분은 정말 현지인 발음과 속도로 듣기 때문에 약간 어렵다고 느낄 수 있으나 들을 수 있는 기회가 2번이기 때문에 귀를 여는데 도움이 됩니다. Core수업이 전형적인 형식의 수업이라면 Elective수업은 좀 더 즐기고 참여하는 수업입니다. speaking과 listening이 수업의 핵심 목표인 만큼 조끼리 주제로 대화하거나 아주 간단한 연극을 하고, 자신의 집을 소개하는 발표를 하는 등 좀 더 말하기 위주의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학생들 대부분 Elective수업에 만족도가 높았고 저 또한 그렇습니다. 반이 맞지 않는다고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원하는 학생에 한하여 반을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정규 수업 이외에 매주 수요일마다 하는 Speaking 동아리와 금요일마다 하는 Workshop 수업이 있는데 Speaking 동아리는 반에 제한 받지 않고 원하는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나라의 친구를 사귀기 아주 좋습니다.

2. 참가 성과

현지 문화를 습득한 것이 가장 큽니다. 저는 예전에 외국에 있던 경험이 있어 영어를 내뱉는 것엔 자신이 있었지만 현지 문화, 즉 현지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영어를 사용하는지에 대해 항상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현지인들이 평소에 사용하는 언어, 예를 들면 식당에서 주문 혹은 결제할 때 쓰는 말이나 간단한 인사말들은 기본적으로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3. 소요경비

프로그램 비용은 교육비 160만원, 숙소 비용 200만원, 문화 체험비 33만원, 픽업비 25만원, 왕복 항공권 약 280만원, 비자 7천원(환율에 따라 상이), 식비 및 기타 경비는 현금 90만원과 카드사용(도합 약 150-180사용)하였습니다. 다들 유심을 구매하셨지만 저

는 skt로밍을 사용했습니다. 로밍은 유심에 비해 2배정도 저렴해서 현지 번호가 필요 없는 저에겐 로밍이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또한 총 비용에서 150만원은 학교측에서 장학 지원받았습니다.

4. 본 프로그램 참가 후 느낀 점

세상은 아주 넓고 나는 아주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망설임이 있다면 후회하지 않게 실천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영어는 말해야 실력이 늘고 말할 때 문법이 틀릴까 주저하고 걱정하는 일은 정말 무의미한 일임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5. 향후 학업 및 진로 계획

1) 학업계획

캐나다 단기 어학연수를 통해 조금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싶은 마음과 영어 실력을 늘려야겠다는 마음이 커져 이번 학기에 잠시 외국에 나갈 생각입니다. 언젠가 늘 꿈꿔왔던 일인데 이번 단기 어학연수가 저에게 큰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2) 진로계획

신문방송학과 학생으로서 광고 마케팅 혹은 방송을 진로로 삼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인 만큼 방송과 광고는 언어와 나라의 제한을 받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매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더욱 다양한 사람들을 매개할 수 있는 창작물을 만들어 내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6. 향후 참가예정 학생들을 위한 조언

우선 굳이 유심을 구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심은 기본 8만원이지만 로밍을 할 경우에는 저렴하게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이패드만 가져갔지만 학교에서 수업할 때는 노트북이 더 편하기 때문에 둘 다 가져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미국 비자를 발급 받으면 체험 도중 미국 여행에 다녀올 수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같은 방을 썼던 룸메이트들과 2박 3일로 LA를 다녀왔습니다. 이는 정말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또한 겨울에 오실 예정이라면 신발에 방수 스프레이를 뿌리고 오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비가 아주 많이 오는 건 아니지만 자주 오기 때문에 신발이 젖기 쉽습니다. 또한 한국으로 귀국할 때 짐이 1.5배가 될 확률이 매우 높으니 캐리어는 여유 있게 큰 걸로 챙겨오시는 편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비자는 여권

번호를 잘못 적어도 승인이 나기 때문에 여권 번호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음식(고추장, 참기름)이 은근 도움이 됩니다. 라면은 굳이 안 사오셔도 됩니다.

8. 활동사진(2장 이상)



스탠리파크



잉글리시베이



그라우스 마운틴(스키 탈 수 있어요)

st tenses

1. When I got home, my roommate made dinner. ^{farewell}

2. When I got home, my roommate was making dinner.

3. When I got home, my roommate had made dinner.

Past Perfect

⊕ S + had + V₃ (p.p.)

⊖ S + hadn't + V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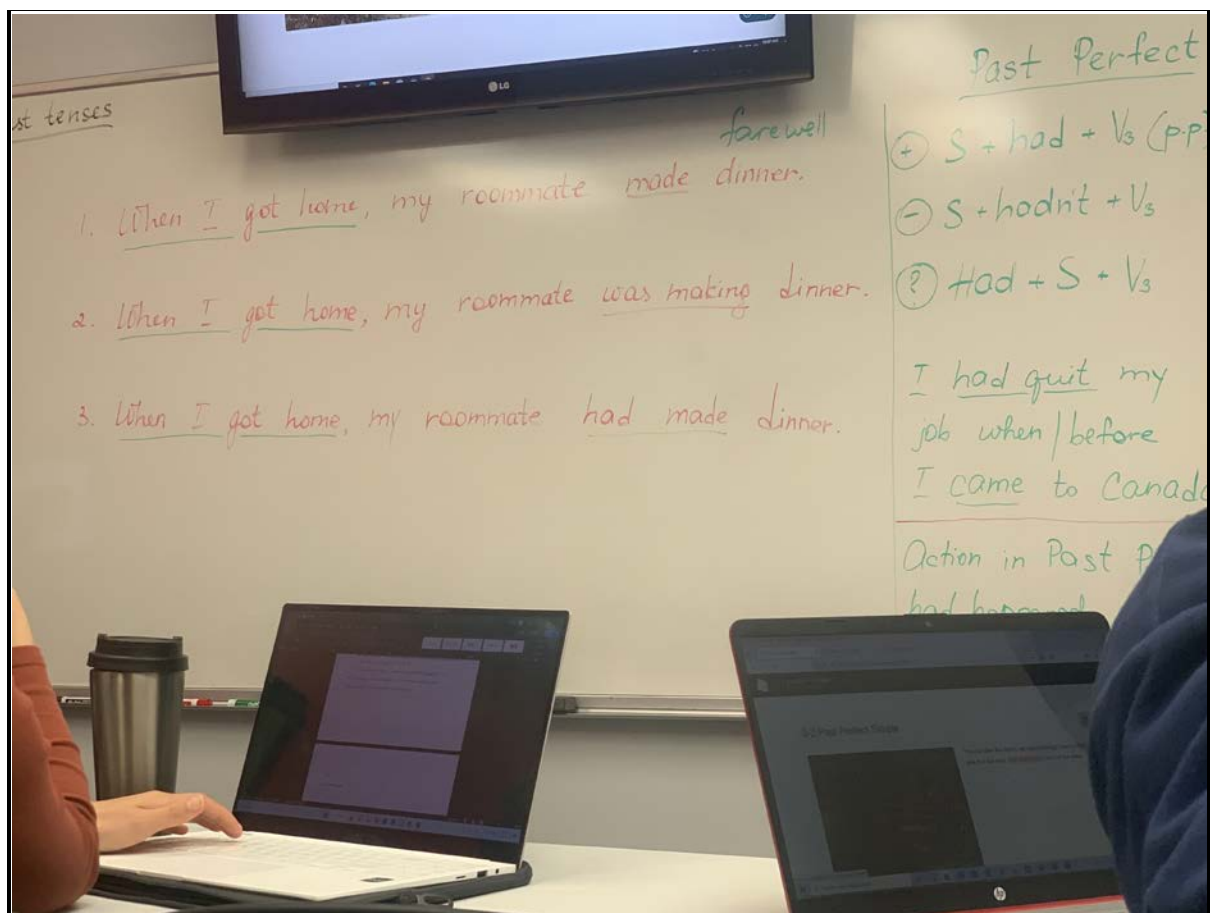
⊙ Had + S + V₃

I had quit my
job when / before

I came to Canada

Action in Past P
had happened





학교

* 귀국 후 1주일 이내에 국제협력팀에 제출 바랍니다.